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31-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

2025. 5. 28.



담당자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부설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e-mail | sspyjc@yonsei.ac.kr

황지은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0791
e-mail | jehwang@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

주요 결과

- 최근 정치 담론에서 ‘극우’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 극단적 태도를 가진 이들의 생각은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극우는 더 이상 극소수의 변방에 머물지 않는다.
-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연세대학교 복지국가 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3월 21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9%)과 20대(28%)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U자형 분포를 보였다. 남성(24%)이 여성(19%)보다 전반적으로 극우 성향이 강했으며, 특히 20대 남성의 비율은 33%로 여성(22%)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 직업군별로는 판매·서비스직(33%)에서 소득별로는 저소득층(100만 원 미만, 30%)과 고소득층(1천만 원 이상, 27%)에서 극우 성향이 두드러졌다.
- 흥미롭게도 극우 성향자 중 36%는 자신을 ‘중도’로, 9%는 ‘진보’로 인식해 이념성향에 대한 자기 인식과 실제 태도 간의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극우 성향 집단은 정치 효능감이 낮은 편으로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진술에 77%, ‘정부는 나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진술에 80%가 동의했다. 반면 사회적 공감에 대한 욕구는 높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공감해주는가는 일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58%가 동의했다.
- 극우 성향을 완화하는 요인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30대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70대 이상에서는 낯선 타인과의 대면 접촉이 극우 성향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극우 성향이 일부 연령대에서 사회적 관계의 양상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고립이나 제한된 교류가 특정 성향 강화와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1 부상하는 극우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극우주의 부상, 한국도 예외 아냐

20세기 중반 이후, ‘중도의 시대’라 불리는 정치적 안정기 동안 극우주의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극우는 다시금 정치 지형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트럼프 집권과 2021년의 국회의사당 점거폭동, 영국의 브렉시트는 이 흐름을 상징하는 장면들이다. 이들은 더 이상 주변부의 급진적 목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정치의 중심부로 진입하려는 실질적 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반이민주의 및 반페미니즘 정서,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급진적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극우 성향이 출현하고 있다. 지난 1월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사건도 이러한 흐름에서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극우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의 우측 끝인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체제의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권위적 리더십과 급진적인 수단을 통해 기존 질서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정서를 의미하며, 이들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도 외국인과 같은 외부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다. 또한, 불평등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고 자연스럽다고 여기며, 약육강식 사고에 익숙하다. 동시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도 중시한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반공주의도 중요한 속성이 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극우 성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극’과 ‘우’ 각 속성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극(far, extreme, populism) 속성에 해당하는 3개 항목(권위주의–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급진주의–현재의 정치·사회 체제를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반엘리트주의(포퓰리즘)–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기득권층은 일반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과 우(right, conservative) 속성에 해당하는 4개 항목(토착주의·반이민주의·외국인의 시민권 부여 및 복지혜택 요건은 지금보다 더욱 엄격해야 한다, 보수주의–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도덕적 규범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반공주의–북한과의 협력보다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다원주의–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점을 가질 수 없으며, 각자의 능력 차이가 당연하다)에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극우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극(far, extreme, populism)

- | | |
|--------------|---|
| 권위주의 |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
| 급진주의 | 현재의 정치·사회 체제를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
| 반엘리트주의(포퓰리즘) |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기득권층은 일반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

우(right, conservative)

- | | |
|-------------|--|
| 토착주의(반이민주의) |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 및 복지혜택 요건은 지금보다 더욱 엄격해야 한다 |
| 보수주의 |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도덕적 규범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 반공주의 |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
| 사회 다원주의 |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점을 가질 수 없으며, 각자의 능력 차이가 당연하다 |

2 극우는 누구인가 – 극우의 얼굴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전체의 21%

이번 조사에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약 21%에 달했다. 반면에 ‘극’ 성향을 갖고 ‘우’ 성향에 모두 부정적 응답을 한 ‘좌’ 성향을 가진 이들의 합인 ‘극좌’는 0.2%에 지나지 않았다.

극우 성향을 가진 이들은 단일한 인구 집단이라기보다는, 여러 사회적 위치와 세대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극우 성향, 20대 남성과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아...연령별 U자형 분포 판매·서비스직과 소득 양극단에서도 극우 성향 두드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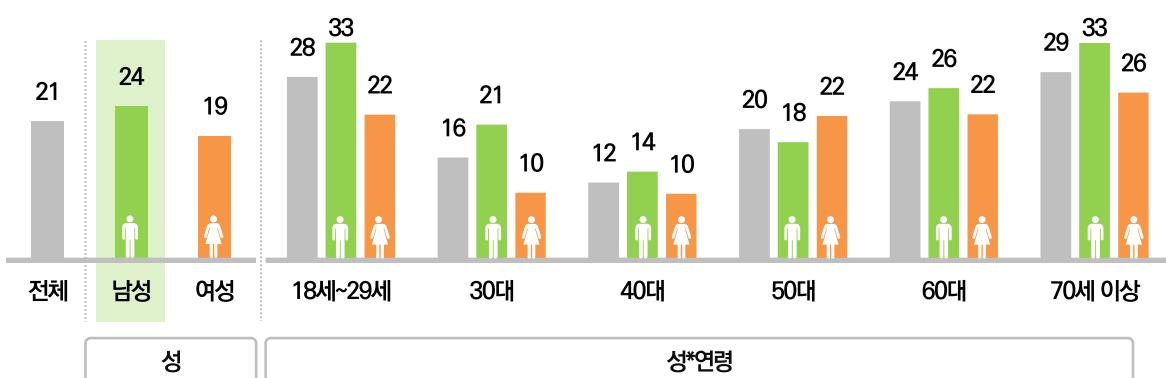
남성의 극우 성향 비율은 24%, 여성은 19%다.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분류됐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층(29%)과 20대 청년층(28%)에서 가장 높았다.

극우성향이 전통적으로 고연령층에 집중된다는 통념을 전복하는 결과다. 반면 40대(12%)는 가장 낮았다. 이렇듯 극우 성향은 연령대에서 U자형 분포를 보였다.

20대라 하더라도, 동연령대 남성(33%)과 여성(22%)의 차이가 컸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1.5배 많다는 의미다. 이러한 특징은 30대에서도 확인된다. 동연령대 남성(21%)이 여성(10%) 대비 두 배 이상 많았다.

성*연령별 극우 성향 분포: 20대 남성과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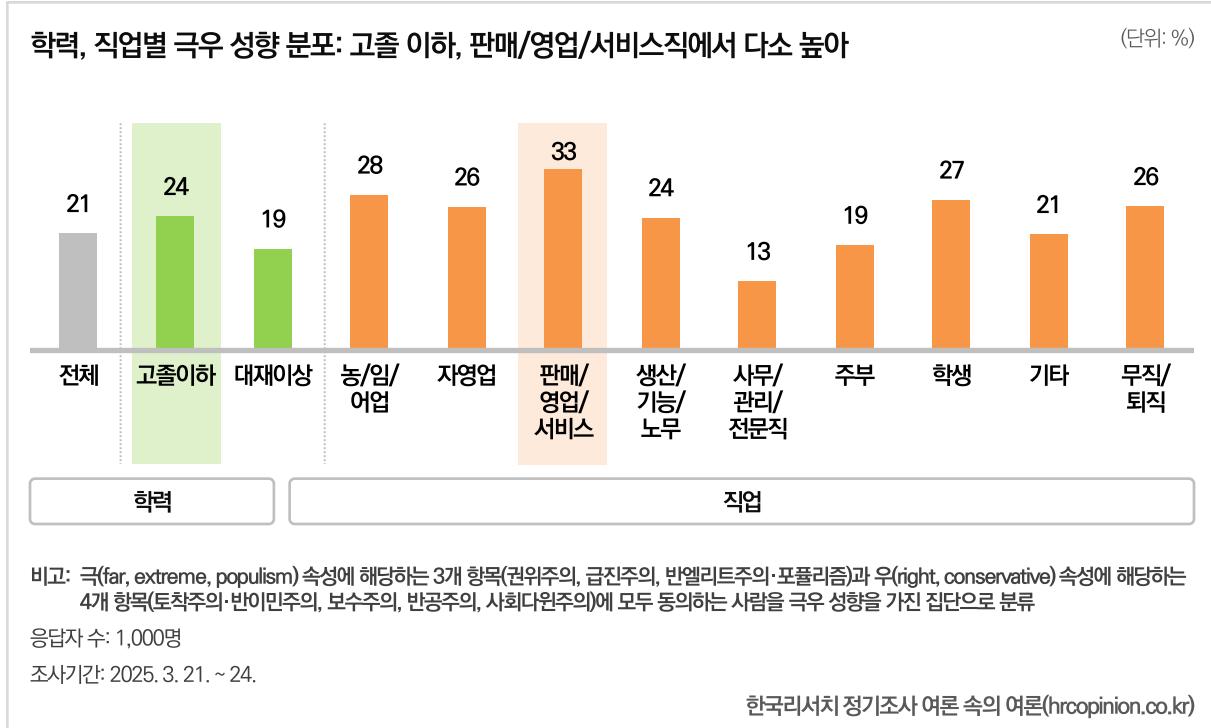


비고: 극(far, extreme, populism) 속성에 해당하는 3개 항목(권위주의, 급진주의, 반엘리트주의·포퓰리즘)과 우(right, conservative) 속성에 해당하는 4개 항목(토착주의·반이민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사회다원주의)에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극우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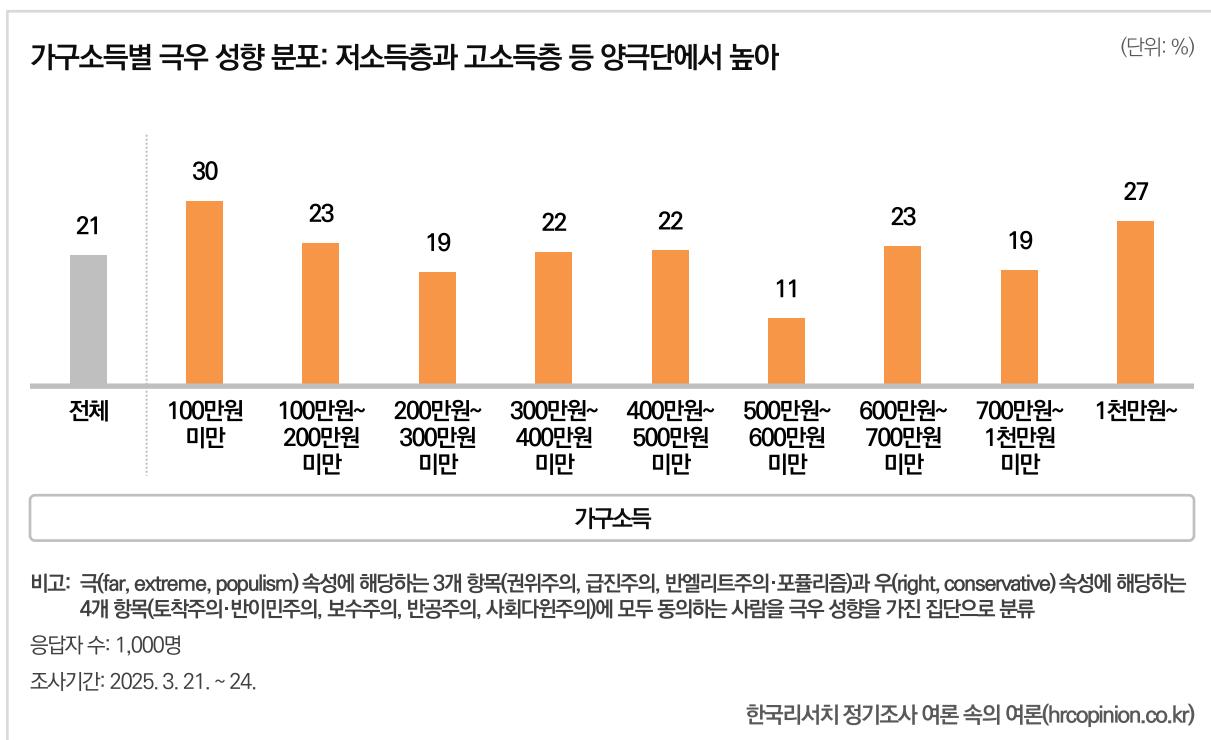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극우 성향은 대재 이상(19%)보다 고졸 이하(24%) 계층에서 다소 넓게 분포한다. 직업군별로는 판매·서비스직(33%) 종사자에서 극우 성향이 높고, 사무직·전문직(13%)은 낮다. 차이가 20%포인트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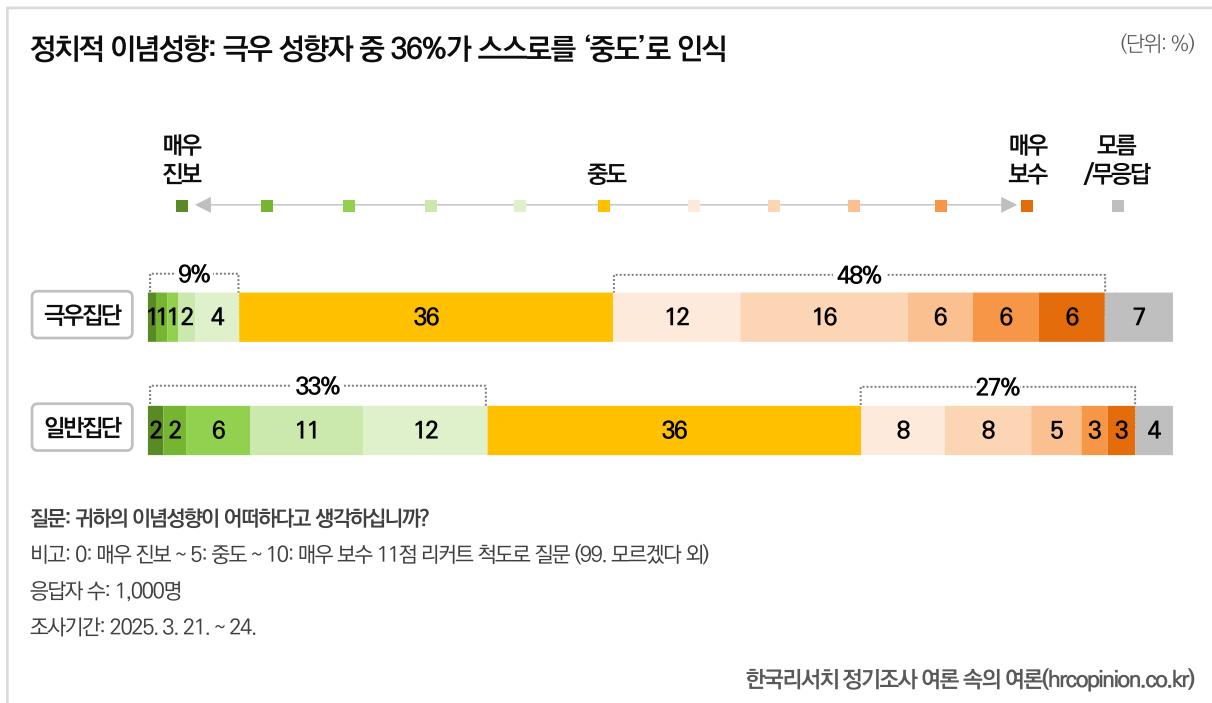
또한 극우 성향은 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등 양극단에서 높았다.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극우 성향 비율은 30%, 1천만 원 이상 최고소득층에서는 27%로 나타났다.



극우 성향자 36%가 스스로를 '중도'로, 9%는 '진보'로 인식

극우 성향 집단 중 자신의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에 36%는 스스로를 '중도'로, 9%는 '진보'로 인식했다. 유사한 성향을 가진 이들과만 소통하는 이들의 경우 본인 이념에 대한 오인과 과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극우 집단 2명 중 1명(48%)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했다. 극우 성향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집단에서는 '보수' 비율이 27%로 극우 집단의 절반 가량이다. 정치적 이념을 응답자에게 묻는 질문으로 극우 성향을 판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이다.



3 극우는 어떤 행태를 보이나

극우 성향자, 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을 야당 책임으로 보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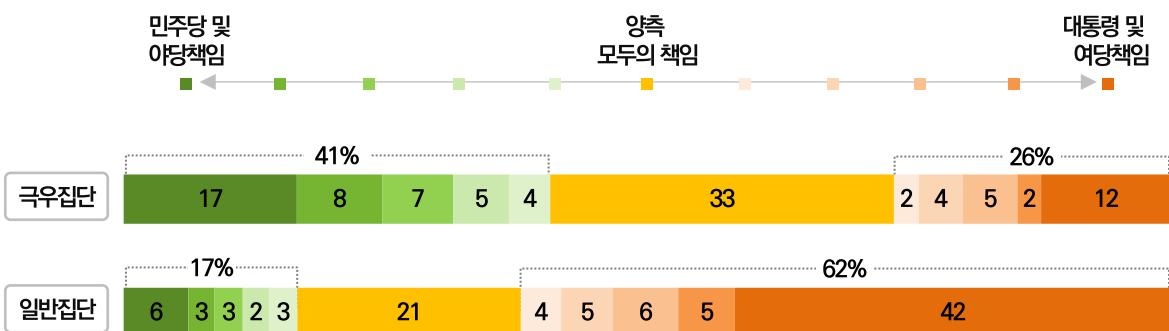
극우 성향을 가진 집단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사회와 정치 전반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한 경향을 보인다.

탄핵 정국과 비상사태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 집단의 42%는 대통령 및 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반면, 극우 집단에서는 12%에 불과했다. 반대로 민주당 및 야당에 전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극우 집단이 17%로, 비극우 집단(6%)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극우 집단이 보수 정치권에 명확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현 상황의 책임을 야당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조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 전, 정치적 책임 논쟁이 절정에 달했던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탄핵정국 책임소재: 극우 성향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야당 책임’

(단위: %)



질문: 귀하는 현 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 관련하여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0: 민주당 및 야당책임 ~ 5: 양측 모두의 책임 ~ 10: 대통령 및 여당책임 11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낮은 정치 효능감 공감 욕구 높지만 자신의 영향력은 의심

극우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정치 효능감이 낮다는 점이다.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진술에 대해 극우 성향 응답자의 77%가 동의했다. 이는 일반 응답자(60%)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진술문에는 극우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80%가 동의하여 일반 응답자보다 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극우 성향자, 낮은 정치 효능감 보여

(단위: %)

■ 그렇다(매우+대체로) ■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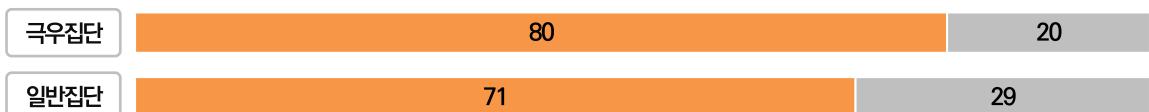
질문: 다음은 정치 참여 효능감 관련 질문입니다. 각 의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세요. –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비고: 그렇다(매우+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 그렇다(매우+대체로) ■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질문: 다음은 정치 참여 효능감 관련 질문입니다. 각 의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세요. –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비고: 그렇다(매우+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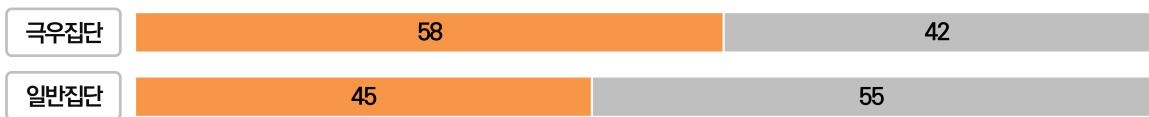
추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공감해 주는가는 일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극우 성향 응답자의 58%가 동의했는데, 이는 일반 응답자(45%)에 비해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극우 성향 응답자들이 소통과 공감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감정은 정책 불신이나 냉소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극우 성향자, 공감의 욕구는 높은 편

(단위: %)

■ 그렇다(매우+대체로) ■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질문: 다음은 사회적 동조 및 의견 표현 관련 질문입니다. 각 의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세요.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공감해 주는가는 일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고: 그렇다(매우+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관계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교류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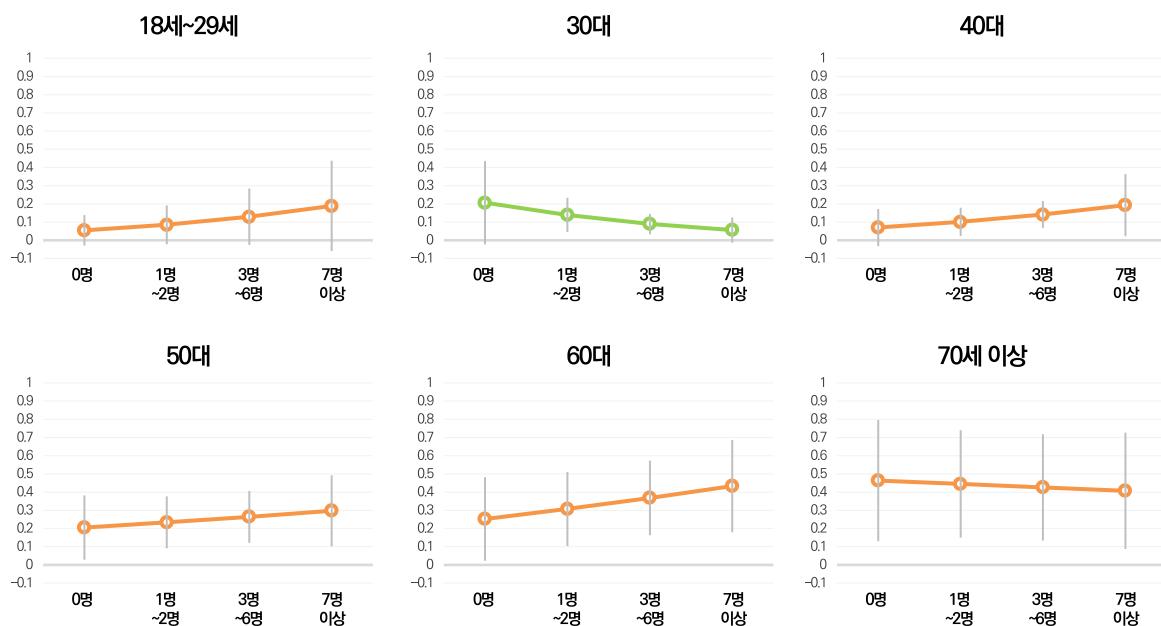
**30대에서는 가까운 관계에서의 교류 많으면 극우 성향 완화되는 경향 있고
고령층에서는 타인과의 교류 많을수록 극우 성향 완화되는 경향 있어**

본 연구팀은 온라인 이용 패턴과 사회적 관계가 극우 성향에 주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봤다. 연구 결과, 온라인 활동은 극우 성향과 뚜렷한 상관이 없었고, 사회적 관계에서는 세대와 교류 대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가족·친척·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교류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극우 성향이 줄어드는 명확한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30대에서는 예외로 교류 인원이 많을수록 극우 성향의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관계 기반의 정서적 안정이 30대의 급진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까운 지인(가족, 친척, 친구)과의 교류에 따른 극우 성향 경향성:
30대만 예외적으로 가까운 지인과의 교류 많으면 극우 성향 완화되는 경향

(단위: %)



질문: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가족, 친척, 친구를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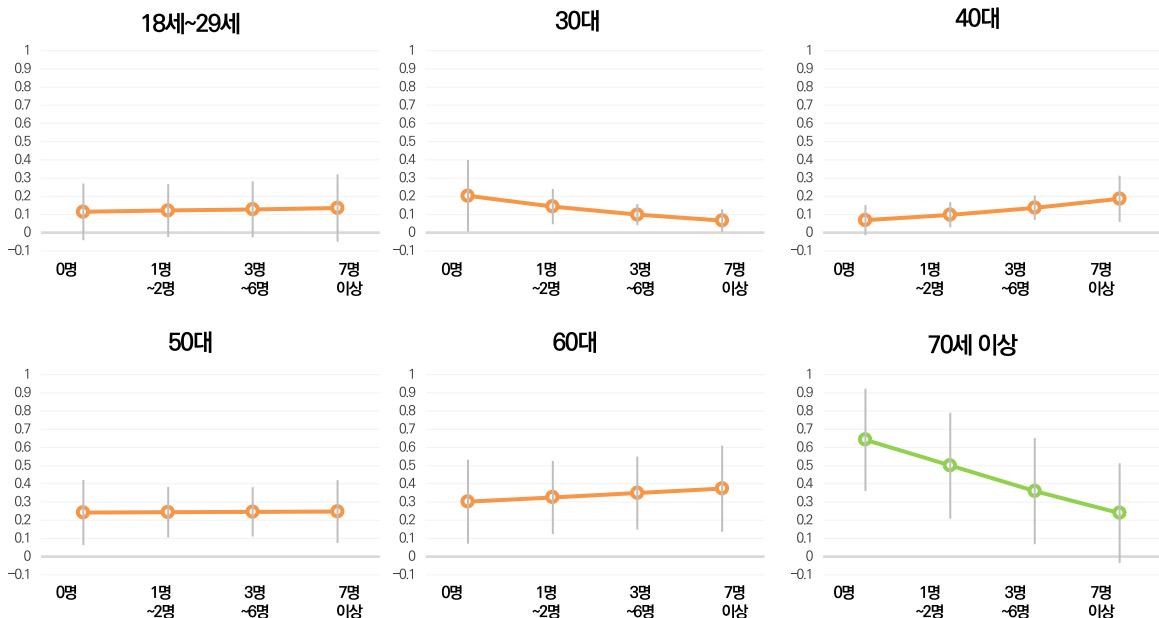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반면, 타인(가족·친척·친구 외)과의 교류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확실한 완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해당 집단에서는 타인과의 대면 접촉이 늘어날수록 극우 성향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외부와의 단절이 고령층의 극우 경향과 연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타인(가족, 친척, 친구)과의 대면 교류에 따른 극우 성향 경향성:
70세 이상은 타인과 대면 접촉 늘어날수록 극우 성향 확률 낮아지는 경향 있어

(단위: %)



질문: 가족, 친척, 친구를 제외하고, 지난 일주일동안 대면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결론적으로, 교류의 대상, 그리고 개인이 속한 세대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것’이 극우 성향을 완화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30대에서는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70대 이상에서는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각각 극우 경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세대별 심리적 맥락과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반영한다.

5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

극우는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아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가시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이를 주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극우 성향의 분포와 태도는 단지 정치적 극단주의의 확산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긴장과 균열,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정서적 반응의 구조와 변화를 보여준다.

극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감정과 누적된 불안 그리고 부조리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왜 특정 세대와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관심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우가 형성된 배경과 실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갈등을 키우는 환경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2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28,923명, 조사참여 1,54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5%, 참여대비 64.6%)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3월 21일 ~ 3월 24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